레버쿠젠 손흥민(왼쪽)이 29일(한국시간) 벌어진 FC쾰른과의 홈경기 도중 돌파를 시도하다 상대 수비수에게 가로막히고 있다. 손흥민은 도움 1개를 기록하면서 풀타임을 소화해 부상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레버쿠젠(독일) | AP뉴시스

손흥민, 리그 2호도움 건재 과시

독언론 "발 절뚝 부상 우려" 보도 속 FC쾰른전 풀타임 활약…팀 5-1대승

부상 우려를 낳았던 손흥민(22·레버쿠젠)이 건재를 과시했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바이 아레나에서 벌어진 FC쾰른과의 2014~201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레버쿠젠이 5-1의 대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에 대한 부상 우려가 컸다. 독일 언론들은 "손흥민이 27일 벌어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C조 5차전 AS모나코(프랑스)와 경기를 마친 뒤 발을 절뚝거리면서 경기장을 떠났다. 부상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3일 만에 열린 분데스리가 경기에 정상 출전해 문제가 없음을 알렸다. 팀 이 2-1로 앞선 후반 34분 요십 드리미치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수비수의 견제를 받자 무리하지 않고 드리미치에게 패스해 팀의 3번째 골을 이끌어냈다. 리그에서만 올 시즌 2번째 도움이다. 1-1이던 후반 15분에는 상대 파울을 유도해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분데스리가 최근 2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제몫을 다하고 있다.

한편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서 활약 중인 김진수(22)는 30일 하노버96과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36분 정확한 땅볼 크로스로 케빈 볼란드의 추가골을 도왔다.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신고한 김진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4-3 승리를 뒷받침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베컴, 아들 브루클린과 함께 교통사고…"어깨 다친듯"

영국 BCC와 텔레그라프 등은 30일(한국시간) 세계적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9·잉글랜드)이 아들 브루클린(15)의 연습경기를 관전하고 함께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아스날에서 유소년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 브루클린은 이날 연습경기를 치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베컴의 차인 회색 아우디 RS6의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둘은 큰 부상이나 상처 없이 걸어서 나와 다른 차를 타고 돌아갔다. 다만 일부에선 "베컴이 어깨를 다친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자세한 부상 정도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전북 선수단이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최종 38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를 마친 뒤 플래카드를 들고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일찌감치 올 시즌 우승을 확정한 전북은 이날 울산과 1-1로 비겨 K리그 클래식 최다인 10연승을 달성하진 못했다. 전주 | 임민환 기자 minani84@donga.com 트위터 @minani84

입대 앞둔 이승기 10호AS '도움왕'

사커 토픽 | K리그 마지막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전쟁

전북 울산전 1-1…클래식 10연승 불발 수원 산토스 14호 이동국 제치고 득점왕

전북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을 평정했다. 값진 통산 3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 기록이었다.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울산과의 정규리그 최종 38라운드 경기에는 전북으로선 3마리 토끼가 걸려 있었다. 팀은 역대 최다인 10연승(챌린지 제외)을 노렸고, 선수들은 개인 타이틀(득점·도움) 싹쓸이를 바랐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진 못했다.

●불발된 클래식 10연승

기록은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의식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강희 감독은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 무실점 연승이 깨진 11월 22일 수원 원정을 꼽았다. 울산전을 앞두고 최 감독은 "수원 원정 때 우리 선수들이 위축된 플레이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2-1 전북의 역전승으로 끝난 그 경기에서 첫 골을 내줄 때까지 전북은 챔피언답지 못했다. 평정심을 찾은 것은 실점 이후였다. "기록을 의식하지 말자고 계속 주지시키지만 선수들은 아무래도…."

울산과의 치열한 사투가 그라운드를 수놓은 90분이 흘렀다.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전북이 노린 두 자릿수 연승은 1-1 무승부와 함께 실패로 끝났다. 전북의 9연승은 울산과 성남일화(현 성남FC)가 보유했던 클래식 최다연승과 타이 기록이다. 챌린지(2부리그)를 포함하면 지난해 상주상무의 11연승이 최다다. 경기 후 최 감독은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아쉽지만 홀가분하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움왕은 얻고, 득점왕은 내주고…

전북은 도움왕만 배출했다. 0-1로 뒤진 후반 21분 이승기가 오른쪽 코너킥으로 한교원의 동점골을 배달했다. 시즌 10호 어시스트. 흥미로운 것은 내부경쟁이었다. 6골·10도움의 레오나르도가 이승기보다 유력했다. 이승기는 5골·9도움이었다. 동률이었지만, 출전 횟수가 적은 이승기(26경기)가 레오나르도(35경기)를 따돌렸다. 최강희 감독은 "(이)승기를 축하하는 것보다 레오나르도를 먼저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레오나르도는 몰리나(서울)와 어시스트 동률(13회)이 됐지만 출전 횟수가 많아 2위에 그쳤다. 군 입대를 앞둔 이승기는 "(도움왕을) 동료들도 궁금해했다. 나도 욕심을 좀 냈다. 그래서 팀이 비긴 것 같다. 레오나르도와 서로 안아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득점왕은 포항 원정에서 동점골을 넣어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한 수원 산토스의 몫이었다. 시즌 14호. 전날(29일) 스테보(전남)가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추가하지 못해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한 이동국(전북·이상 13골)과 산토스의 2파전이었다. 결국 시즌 최종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산토스가 클래식 최고의 킬러에 등극했다. 전주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구자철 "1월 아시안컵…해외파들 스스로 몸관리 잘하자"

▌분데스리가 리포트

박주호와 샬케전 분전 불구 팀은 1-4 "소속팀 주축 기성용 손흥민 부상 조심"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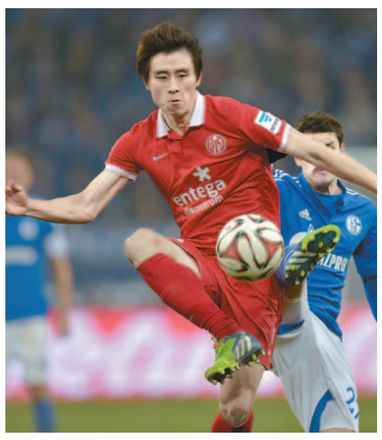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릴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구자철(25·마인츠)이 대표선수들의 몸 관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손흥민(레버쿠젠),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대표팀 주축선수들이 소속 리그와 대표팀을 오가며 휴식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다보니 피로누적, 부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터라 더욱 주목된다.

구자철과 팀 동료 박주호는 29일(한국시간) 벨틴스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4~201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샬케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구자철과 박주호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마인츠는 1-4로 패했다. 특히 박주호는 2경기 연속 중앙미드필더로 나섰지만, 후반 중반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다 후반 21분 결국 엘킨 소토와 교체됐다.

이미 27일에도 손흥민이 AS모나코(프랑스)와의 2014~201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홈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피로누적으로 비롯된 다리 부상으로 교체된 바 있다. 당시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지친 모습이 역력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29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쾰른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1도움을 올리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지만, '손흥민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국내외 여론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박주호의 몸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박주호는 샬케전 직후 구단 스태프의 부축 속에 라커룸을 떠났다. 구자철은 박주호의 몸 상태에 대해 "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최대한 통증이 있는 발을 땅에 내딛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이어 "기성용, 이청용(볼턴), 손흥민 같이 소속팀에서 주축으로 계속 나오는 선수들은 분명 피로가 더 쌓이고 있을 것이다"며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이 한국대표팀에는 몹시 중요하다는 걸 선수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본인 스스로 피로누적 및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경기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아쉽지만 경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지만, 경기감각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겔젠키르헨(독일) | 박종민 통신원



마인츠 구자철이 29일(한국시간) 열린 샬케04와의 원정경기 도중 볼을 오른발로 컨트롤하고 있다. 구자철은 내년 1월 열릴 아시안컵에 대비해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스스로 몸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겔젠키르헨(독일) | AP뉴시스

QPR 윤석영 부상 "스완지전 기성용과 맞대결 뛰고 싶다"

▌통신원 리포트

레스터시티전 후반 교체…팀은 승 "검사 받아봐야 하지만 심하진 않아"

'로프터스 로드 극장'이 또 재연됐다. 30일(한국시간) 런던 로프터스 로드 스타디움에선 윤석영(24·사진)의 퀸즈파크레인저스(QPR)와 레스터시티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4~2015시즌 13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후반 28분 터진 찰리 오스틴의 결승골로 3-2 승리를 챙긴 홈팀 QPR은 3승2무8패, 승점 11로 20위에서 18위로 도약했다. 최근 주전 자리를 꿰차고 연속으로 풀타임 출전 중인 윤석영은 이날 무릎 부상으로 후반 6분 교체됐다. 전반 44분 상대 미드필더 리야드 마흐레즈와 볼을 다투던 중 무릎을 다쳤기 때문이다.

●윤석영 "심각하진 않아"

경기 후 취재진을 만난 윤석영은 부상에도 밝은 모습이었다. 무릎 부상에 대해선 "다행히 심하지는 않다. 조금 부었지만 후반에는 통증이 심해 뛸 수 없었다. 검사를 받아야 더 자세한 상황을 알 것 같지만, 심각한 건 아니다. (현지시간) 화요일 스완지시티전에도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영은 3일 스완지시티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기성용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올 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선 각자의 팀에서 맹활약 중인 두 선수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QPR 선수들이 검은 완장을 찬 이유는?

이날 경기 전 양 팀 모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QPR의 오랜 팬인 말콤 오클리와 앨리스 브룩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클리는 50년간 단 한번도 빼놓지 않고 QPR의 홈경기를 관전했고, 2013년에는 토니 페르난데스 QPR 구단주로부터 '올해의 QPR 팬'상을 받기도 했다. QPR은 경기에 앞서 대형화면에 두 사람의 생전 사진을 띄웠다. 관중과 양 팀 선수들은 1분간 박수로 추모했다. QPR 선수들은 또 두 사람을 위해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렀고, 결승골의 주인공 오스틴은 골 세리머니로 미리 준비한 두 팬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들어 추모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오스틴은 "오늘의 승리와 골은 두 팬들에게 바친다. 오늘도 홈팬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많은 팀들이 로프터스 로드에서 힘겨운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 626 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13	14	26	33	40	43	15

1등 총 당첨금 13,742,968,880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8 명	1,717,871,11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45 명	50,899,885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766 명	1,296,99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86,261 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371,217 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4.11.29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시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